

2024 새해 이렇게

구복규 화순군수

꽃강길·개미산 전망대...도심 속 생태문화 실크로드 조성



폐광 대체산업 발굴·만원 임대주택 지속 추가 공급 젊은 도시 건설 백신특구 사활 걸린 '면역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총력

“화순의 백년대계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인 화순형 인구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숙원사업인 ‘차세대 면역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5643억원)과 관련해 폐광 대체산업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연장과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수수료(카드수수료 0.5% / 1인 최대 50만원)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봄(4월)과 가을(10월-11월) 2회 개최하는

“2024년 화순 고인돌 축제는 아름다운 꽃을 중심으로 체험·전시 부스,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세계를 겨냥한 축제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화순전 꽃강길과 개미산 전망대를 상반기 중 완성, 산책로 및 하천부지에 조성한 꽃길과 화려한 음향분수대를 배경으로 버스킹과 푸드트럭 등 먹거리 장터까지 도심 속 이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구 군수의 야심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 최대 87홀(연습홀 6홀) 규모의 화순 흥수조절지 파크골프장도 주변 산책로 등 수변공간과 어울린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세우기 위해 공사를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리모텔링에 들어간 남산공원은 수국원, 사계정원, 잔디 언덕, 파빌리온과 함께 야간에는

‘빛’ 공원으로 깜짝 변신해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한 도심 속 쉼터로 주변 상권에 활기를 찾아 줄 것이다.
지난 한 해 16억원 연매출로 신기원을 이룬 화순팜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신규 입점과 품목 확대에 나선다.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와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그는 “화순군의 진정한 숙원사업은 2032년까지 10년간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차세대 면역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있다”며 “화순 백신 특구의 사활이 걸려있는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은 대한민국 혁신의 상징이 됐다며 새해에도 화순형 인구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100호 추가 공급(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과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젊은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질병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2개소) 운영을 계속한다. 또 전입, 결혼·출산·보육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침구류 수거·세탁·건조·포장·배달을 총괄하는 윈스플 서비스 ‘사랑 빨래방’과 찾아가는 ‘차량 이동 세탁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군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새콤달콤 장성 레드향으로 설 선물 하세요”

11개 농가 내달까지 70t 수확...로컬푸드 직매장 등서 구매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에서 재배한 아열대과일 '레드향' 수확을 돕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에서 재배한 아열대과일 '레드향'이 설을 앞두고 본격 출하되고 있다.
그동안 레드향은 기후가 온화한 제주도와 전남 남부 해안지역에서만 주로 재배했다.
'레드향'은 감귤보다 열이 크고 조금 더 붉은 빛깔을 띤다.
껍질을 벗기면 퍼지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과즙을 가득 품은 맹글맹글한 알갱이는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입안 가득 선사한다.
무엇보다 당도가 13브릭스(Brix)에 이를 정도로 높아 신맛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비타민C와 P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겨울철 감기 예방과 혈액 순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 현재 장성에선 11농가 3.1ha에서 레드향을 재배 중이다. 오는 2월까지 70t 가량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가격은 kg당 1만2000원이며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레드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선호하는 고급 아열대과일”이라며 “설 명절 선물로 갖 수확한 장성 레드향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나주시, 경로당 620곳 입식 테이블 보급 완료

마을 경로당을 집보다 더 많이 찾는 나주시지역 어르신들의 무릎이 편해졌다.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에 무리를 주는 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역점 추진한 '마을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된 덕분이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관절질환 예방과 식사·여가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됐다.
예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연말까지 전체 경로당 620곳에 보급을 마쳤다.

입식 테이블과 의자 보급엔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다. 경로당별 면적과 어르신들의 신체 여건 등을 고려해 4인용 입식 테이블과 고정형 의자를 이용자 수에 맞춰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전통적인 좌식 문화 때문에 관절 건강은 물론 식사와 여가생활에 불편이 커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2024년 자전거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강진군이 올해 전국 규모 축구대회 3개를 유치하며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달 28일까지 강진에서 진행되는 자전거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 훈련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 올해 전국 규모 축구대회 3개 유치

지난해 스포츠 대회 경제효과 100억
강진군이 올해 전국 규모 축구대회 3개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와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유치했고,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연속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열리도록 했다.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매년 11월께 열린다. 전국 64팀 1500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친다.
초등(U12)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강진축구전용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 초등(U12) 48개 팀 1000여명이 참가해 일주일간 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인조잔디 구장 1면을 신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더 유치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방문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천연 잔디 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구장마다 응급 차량 배치를 지원한다. 급수대와 온수기를 설치하고 음료 준비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10만8998명이 강진을 찾았다. 이들은 100억1400만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1만명 방문, 2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강진이 스포츠대화와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하겠다”며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강진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